

# 고흥, '2026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최종 선정

### 년간 사업비 3억 원 지원,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기대



고흥군청 전경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고레몬 영농조합법인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6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하며 청년인구 유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전남 8개 시군 13개 청년단체가 응모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실사,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3개 시군의 청년단체가 선정됐다. 선정 단체에는 3년간 각 3억 원이 지원된다.

고흥군 선정 청년단체인 '고고레몬영농조합법인'은 스마트팜 교육생·수료생 6명으로 구성됐으며, 귀농 청년의 소득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청년 스마트전정단' 모델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종수 기자

보성군, 전남형 청년마을 선정...4곳 운영

보성군은 지역 청년단체 ㈜라이프도스트(대표 신선영)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6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보성군은 총 4개의 청년마을을 운영하게 돼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다 수준을 기록했으며, 행정안전부 청년마을과 전남형 청년마을을 모두 운영하는 전남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올해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는 도내 13개 청년단체가 참여했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이 선정됐다.

사업 수행기관인 ㈜라이프도스트는 별도로 정착한 청년 4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2025년부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청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기반을 마련해 왔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이 심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종수 기자

해남군, 13일 고산오우가 정원서 국악공연 개최

해남군은 오는 13일 오후 4시 고산유적지 내 고산오우가정원에서 국악공연'자연의 결을 따라 흐르는 우리 가락'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를 테마로 조성된 고산오우가정원의 의미를 살려 인공적 연출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소리를 살린 국악 중심 공연으로 운영된다. 군민과 고산유적지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문화 향유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은 가야금 산조를 시작으로 전통무용, 피리 연주, 오우가 설명 및 낭송, 가야금 병창, 판소리(수궁가 중), 설장구 공연 등 다양한 전통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고산 윤선도의 대표 시가인 '오우가'의 의미를 함께 풀어내며 관람객들이 자연과 문학, 전통음악이 어우러진 고산오우가 정원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윤보현 기자

진도군, 만감류 현장 중심 맞춤형 컨설팅 추진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만감류 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자문(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자문(컨설팅)은 기후변화와 재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만감류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만감류 재배 전문가인 제주 서부농업기술센터의 현상철 팀장을 초빙했다.

특히, 만감류의 생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기술교육이 이뤄졌으며,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즉시 알려주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득작목의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컨설팅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한국버섯학회 우수발표자상 수상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한국버섯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버섯균사체를 활용한 펩투드 소재 등 3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사)한국버섯학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버섯의 항해: 과학에서 창조경제미래로'를 주제로 개최하여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버섯 산업의 최신 연구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버섯 산업 발전 전략, 기능성 소재 개발, 버섯균사체 기반 산업화, AI 활용 스마트 재배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며, 연구자 및 버섯 생산 주체간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해 버섯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원은 학술대회에서 버섯균사체를 활용한 한약재 발효 펩투드 소재의 유용 성분 연구 결과를 발표해 우수 발표자상을 수상했다.

/백두연 기자

# 청정 바다 완도산 건다시마, 첫 위판 26톤 거래



지난달 29일 완도금일수협에서 건다시마 위판이 이뤄지는 모습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다시마 주산지인 지난 해 기준 37만 5천 톤의 다시마를 생산했다.

이는 전국 다시마 생산량(56만여 톤)의 66%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지난달 29일 완도금일수협 건다시마 위판장에서 2026년산 건다시마 첫 위판이 이뤄졌다. 위판 가격은 최고가 9,700원, 최저가 5,500원, 평균가는 7,289원으로 형성돼 총 1억 9천만 원의 위판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첫 위판 대비 위판량은 50.6%, 위판액은 32.1% 증가했으나 평균 단가는 1,023원 하락했다.

건다시마는 완도 금일읍을 비롯해 신지면, 약산면, 생일면을 중심으로 7월 초까지 수확·건조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인증 부표 보급 지원', '양식 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다시마 생산 및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초매식과 풍작기원제가 열려 다시마 생산 어업인들과 함께 건다시마 풍년과 안전 조업을 기원했다.

'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완도 다시마는 청정 해역에서 자라 특유의 깊은 맛과 풍부한 향을 자랑한다. 특히 요오드,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완도군은 인증 부표 보급과 양식장 자동화 설비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 다시마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어가 소득 증대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 어민들은 금일읍과 신지·약산·생일면 일대에서 본격적인 수확과 건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완도 다시마는 청정 해역에서 생산돼 풍부한 영양과 깊은 맛으로 소비자들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문수 기자

